

“불황 찬바람 무섭네요”

일감 푹 끊긴 車 등록업체 ‘울상’

연초특수도 사라져

“새 차를 사려는 사람이 급감하면서 일감 자체가 거의 없어요. 다른 일 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지난달 30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에서 만난 차량등록대행업체 직원 김모(27)씨의 입술은 바짝 말라있었다. 불황의 여파로 차량 등록건수가 급감하면서 번호판 교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김씨는 “예년 같으면 차량 등록이 몰려 정신없이 바빠야 할 연초이지만 올해는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다”며 “지난해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30~40대의 번호판을 달았지만 올해는 대여섯대를 다는 게 고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어제도 하루를 꼬박 대기했지만 2만원도 손에 쥐지 못했다”며 “번호판 교체 수수료가 건당 2천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비와 식비조차 대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차량 등록이 급감함에 따라 신규 차량의 번호판을 달아주는 등록대행업체가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해 차량 구입이 크게 늘어났던 것과 달리 올 들어선 등록소수를 찾는 발길이 끊길 만큼 ‘연초 특수’가 자취를 감췄다. 불황의 여파가 지역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한 달간 광주시 동구 등 5개 자치구에 새로 등록된 차량은 2천444대.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천577대)에 비해 20.1%(613대) 감소한 것이다.

구별로는 광산구가 최근 한 달간 차량 292대가 등록돼 1년 전보다 26.8% 줄었고, 서구도 720대로 26.5% 감소하는 등 각 구청의 차량 등록 건수가 동반 감소했다. 남구도 올해 등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자동차 구입이 줄어들면서 신규 차량등록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시 남구청 교통과에 주인을 기다리는 번호판이 늘어서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록건수가 409건에 그쳐 1년새 24.5% 줄었다.

이에 따라 등록대행업체나 일선 구청도 담당 직원을 줄여나가고 있다. 북구는 지난해 말 차량번호판 교부대행업체의 직원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다. 불황에 따른 등록 감소로 번호판 교체 건수가 30%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남구의 번호판 대행업체도 차량 번호판 관련 직원을 지난해 두 명에서 최근 한 명으로 줄였다. 서구의 차량번호판 대행업체도 이달 초계 담당 직원 세 명 가운데 한 명을 줄일 계획이어서 직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전국 최초...학생교육문화회관에 5월 5일 개관

광주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 들어선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광주시 서구 상무민주로에 위치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내에 어린이 영어 전용 도서관을 개관한다.

어린이 영어전용 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며, 인프라 구축 등에 모두 3억 5천만 원이 투입된다.

도서관에서는 영어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말하기, 쓰기,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영어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기자재 등이 설치된다.

시 교육청은 또 어린이들이 거슬러 올림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책읽기, 스토리텔링 등을 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다.

영어발표 무대와 영어 드라마 감상 공간 등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함께 수준별, 주제별 등에 맞춘 각종 영어책을 비롯한 백과사전, 영상자료 등도 비치할 계획이다.

또 민간업체 등에서 개발된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돼 영어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어민과 한국인 전임강사, 프로그램 운영자 등을 고용,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학생 이용률이 낮은 오전에는 학부모 대상 영어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 학생회관에는 연간 이용객만 2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어린이도서관도 들어서 있는 만큼 영어 도서관이 조성되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수완지구 시내버스 5개 노선 신설·연장

광주시는 오는 3월까지 수완·하남 2지구로 연결되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3개 노선은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오는 8일 첨단~수완 지구 연결도로 개통에 맞춰 첨단~수완~월곡~상무~금호지구를 연결하는 금호40번을 신설한다.

또 3월에는 수완~신창~신가~운남~월곡~하남2지구를 연결하는 순환노선인 수완10번을 신설, 다른 도

심권과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송암공단과 신창지구를 운행하는 송암72번과 나주~월곡간 송정196번은 수완지구까지 연장 운행된다. 이에 따라 수완지구에는 기존 문흥39번, 첨단92번을 포함 모두 5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문흥18번은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하남2지구까지 연장 운행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경제적 손해 없다면 배임죄 성립 안돼”

광주지법 판결

회사의 합병절차에 반대한 허위로 질권(質權)을 설정하고 외형상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더라도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강)는 지난해 30일 배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미국계 기업 전직 상무이사 권모(4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만 적용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질권 설정승낙서를 위조해 회사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개인적 이익이 주된 동기가 아니

라고 보이고, 담보 설정도 실질적으로 공장에 손해를 주지 않아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2007년 12월 미국측 대주주에 의해 합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광주공장 매각과 함께 전 직원이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회사 예금통장과 도장 등을 이용해 회사돈 68억여원에 대해 자신을 질권자로 설정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회사예금 9천700만원을 불법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수사와 재판 결과 권씨는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의 퇴직보상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여지책’으로 회사 예금을 담보물로 잡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1분 해질 18시 02분 달돋이 10시 45분 달짐 --시--분

아침안개 조심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광주	흐림	3/12°C
목포	흐림	3/11°C
여수	맑은 뒤 흐림	5/10°C
완도	흐림	3/11°C
구례	흐림	-1/11°C
해남	흐림	0/12°C
장흥	흐림	0/12°C
고흥	맑은 뒤 흐림	3/12°C
순천	맑은 뒤 흐림	3/12°C
영광	흐림	2/11°C
진도	흐림	1/12°C
전주	흐림	2/11°C
남원	흐림	-1/11°C
속산도	흐리고 한때 비	6/10°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동	0.5~1.5m	목포 06:32	11:40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동	0.5~1.5m	여수 01:10	07:02
			13:01	19:21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4/12	1/12	2/12	2/12	2/11	2/12

중순에 마지막 한파 온다

광주·전남 내일 새벽부터 비

광주·전남지역은 2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진 뒤 3일 새벽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광주·전남 지역은 구름 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늦게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1일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10~12도. 3일 새벽부터 광주·전남지역엔 비가 예상되지만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지방은 5~10mm, 그 이외의 지역은 5mm가 예상되며 비는 오후 들어 개겠다. 이날 광주·전남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

은 9~12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는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이 영상의 기온을 보이며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중순에는 막바지 한파가 닥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오는 11~20일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평균 기온이 평년(-5~8도)보다 낮아지면서 추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전남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항공기 결항이 이어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기상청 휴대폰으로

동네날씨 예보한다

기상청은 휴대폰으로 동네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31을 누른 뒤 각 통신사의 인터넷에 접속해 날씨예보 가운데 동네예보를 선택하

면 된다. 검색란에 기상상황을 알고 싶은 동(洞)을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강수량, 기온, 풍향, 풍속, 습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는 휴대폰 통화료 외에 별도의 요금이 붙지 않는다. 동네예보는 매일 오전과 오후 2시, 5시, 8시, 11시 등 하루 8차례 발표된다. /연합뉴스

국내 연구진, 동맥경화 막는 메커니즘 찾았다

국내 연구진이 체내 활성산소 생성을 조절하는 단백질 이용해 대표적인 혈관질환인 동맥경화의 발생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찾았다.

건국대 의학과 김보경(43), 충남대 의학과 전명화(43), 호서대 본초응용

과학과 이한명(34) 교수 연구팀은 1일 쥐 유전자 조작 실험을 통해 활성산소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Ref-1’이 혈관 손상 시 나타나는 신혈관내막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으로 수행된 이 연구결과는 순환기 분야 국제학술지 ‘서큘레이션 리서치(Circulation Research·1월 30일)’에 게재됐다.

동맥경화는 대표적인 혈관질환으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 내막이 손상되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만 발병 및 억제 기전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공항공정비장 무료이용
 국민 최대의 만족도를 주는 **광주MBC문화항공** 상환합니다 www.kmfc.or.kr

"기초의 때까지 상품과 서비스가 다릅니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안리 공항에서 출발 ▶ 장사(장가계) 직항 ▶ 편도 1인당 1,200,000원 ▶ 왕복 2인당 2,4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안리 공항에서 출발 ▶ 상해(방콕) 직항 ▶ 편도 1인당 1,500,000원 ▶ 왕복 2인당 3,000,000원

중국東方航空 光州MBC문화항공 光州·전남 북 유망여행사 ☎ 문의 062-226-6070